

쌍용자동차, 임금체불 놓고 충돌

노조, 생존권 위해 강력대응 천명 ... 휴무기간 동안 집회 계속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12월22일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구조조정 및 기술유출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공장 가동중단으로 휴무중인 1000여명의 직원들이 모여 “쌍용차는 구조조정과 상하이자동차로의 기술유출, 일방적인 12월 임금체불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영이 악화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면 자본투자와 기술유출 중단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1만 노동자의 생존권이 달린 기술유출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12월23일 평택 시청 앞에서 집회 및 거리홍보전을 여는 등 공장 가동중단 기간 동안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다.

주력 생산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급감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는 12월17일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2월 임금 체불을 결정해 노조에서 출근투쟁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2/23>